

미학·성능 담은 ‘드림카’... 대형 전기SUV 출격

현대차가 3일 전동화 대형 SUV(스포츠 실용차) ‘아이오닉 9’ 사전 계약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아이오닉 9는 전기차 브랜드 아이오닉의 플래그십 모델로 E-GMP 기반 동급 최대 휠베이스를 통해 실내 공간을 극대화했고 110.3kWh 배터리 탑재로 전 모델 1회 충전 주행가능 거리 500km 이상을 달성하는 등 우수한 상품성을 갖추고 고객들에게 차별화된 전기차 경험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이오닉 9는 공기 역학의 미학을 담은 디자인과 넉넉한 실내 공간을 갖췄다. 또 공력 성능을 극대화하고 전비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디자인 요소와 기술들을 적용해 대형 SUV로는 최고 수준인 공기저항 계수 0.259를 달성했다.

아이오닉 9는 전장 5060mm·축간거리 3130mm·전폭 1980mm·전고 1790mm로 넓은 공간을 갖추고 동급 최대 수준의 23열 헤드룸과 레그룸을 확보했다. 현대차는



현대차가 3일 전동화 대형 SUV ‘아이오닉 9’ 사전 계약을 시작한다.

현대자동차

현대차 아이오닉9 사전 계약... 1회 충전 500km 주행 넉넉한 실내 공간에 공기저항 계수 0.259... 대형 SUV 최고

아이오닉 9에 6인승 3종·7인승 1종 등 총 4종의 다양한 시트를 구성했다.

아이오닉 9의 외장 색상은 7종의 유광 컬러와 3종의 무광 컬러 등 총 10가지로 운영된다. 내장 색상은 총 5가지다. 아이오닉 9은 E-GMP를 기반으로 110.3kWh 배터리

를 탑재해 1회 충전 시 최대 532km 주행 가능하고 전체 모델이 500km 이상의 1회 충전 주행가능 거리를 달성했다.

아이오닉 9은 항속형과 성능형 모델이 있다. 후륜 모터 기반 항속형 2WD 모델은 최고 출력 160kW·최대 토크 350Nm·전

비 4.3km/kWh·1회 충전 주행 가능거리 532km로 우수한 성능을 갖췄다.

항속형 AWD 모델은 최고 출력 226kW·최대 토크 605Nm·전비 4.1km/kWh·1회 충전 주행가능 거리 503km다. 성능형 AWD 모델은 최고 출력 315kW·최대 토크 700Nm·전비 4.1km/kWh 1회 충전 주행 가능거리 501km다.

또 현대차는 아이오닉 9에 400-800V 멀티 초고속 충전 시스템을 탑재해 350kW 급 충전기로 24분 만에 배터리 용량 10%에서 80%까지 충전할 수 있게 했다.

현대차 관계자는 “전동화 브랜드 아이오닉의 플래그십 모델인 아이오닉 9을 통해 가능성들을 현실로 만드는 새로운 전동화 경험이 펼쳐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최고 수준의 주행가능 거리와 다양한 첨단 안전 및 편의시장을 갖추고 차별화된 고객 경험을 선사할 아이오닉 9에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양준규 기자jgyang@skyedaily.com

“강자의 시간 호시우보로 준비”

김동명 LG엔솔 사장, 메시지 “위기 때 진정한 실력 드러나”

김동명(사진) LG에너지솔루션 최고경영자(CEO·사장)가 3일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지금은 ‘강자의 시간 호시우보(虎視牛步)의 자세로 준비합시다’라는 제목의 메시지를 보냈다.

김 사장은 메시지에서 “북미의 여러 정책 변화가 예고되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많은 것은 사실이고 저는 지금을 ‘강자의 시간’이라고 정의하고 싶다”며 “위기 때 진정한 실력이 드러나니 미래 슈퍼사이클 도래 시 결국 실력을 갖춘 기업이 이를 지배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사장은 범처럼 노력보고 소처럼 걷는다는 ‘호시우보’의 자세로 철저히 준비하고 실행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사장은 시장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되 제품 및 가격 경쟁력에서 우위를 갖추는

활동을 우직하고 묵묵히 실행해 나갈 시점이 라고 지적하고 “이러한 가을 슈퍼사이클

의 지배자는 LG에너지솔루션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며 “우리는 이미 강자의 요건을 갖추고 있고 더욱 차별화된 경쟁력을 축적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김 사장은 이에 대한 근거 세 가지를 제시했다. 첫 번째 이유는 기술 리더십이다.

김 사장에 따르면 LG에너지솔루션은 업계 최초 LFP 파워치 CTP·유립 상용차용 고전압 미드니켈46시리즈 등 대규모 수주를 달성해 기술리더십을 방증했으며 게임 체인저가 될 건식전극도 선점해 실제 고객들도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두번째는 글로벌 톱 오퍼레이션 역량이다. 김 사장은 2024년 자동차전지 연평균 역대 최고 수출인 95%를 돌파한 것이 절대 쉬운 성과가 아니라고 강조하며 시장이 활력을 되찾는 시기 분명한

강점이자 차별화된 경쟁력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자신했다.

김 사장은 EV와 ESS 등 각 사업부문에 서 꾸준히 수주 성과가 이어지고 있으며 지않은 미래에 LG에너지솔루션의 오퍼레이션 역량과 맞물려 큰 시너지를 낼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준규 기자jgyang@skyedaily.com



카카오모빌리티 ‘상생 약속’ 드디어 이뤄지나

상반기 내 지역 참여형 가맹본부 전국 권역 운영 예정 카카오모빌리티 측 “진행 중... 자세한 사항 확인 필요”

카카오모빌리티의 상생 행보가 결실을 맺으려 하고 있다. 다만 관련 서비스 출시 시점이 아직까지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택시기사들이 수수료 인하 효과를 체감하려면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3일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카카오모빌리티가 택시업계와의 상생안으로 내놓은 지역 참여형 가맹본부가 상반기 중 전국 권역별로 운영을 시작할 전망이다. 지역 참여형 가맹본부는 총 10개 브랜드로 지역 택시기사들을 상대로 가맹 모집을 진행 중이다. 카카오모빌리티 자체 가맹택시 브랜드 카카오T의 실질 수수료 3~5% 수수료보다 낮은 2.8%의 수수료가 특징이다.

이에 대해 택시 업계 관계자와 이야기를 나눠본 결과 10개 브랜드에 대한 가맹택시 신청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가맹 모집이 한창 진행 중인만큼 확실한 출범 시점은 확실하지 않은 상태다.

카카오모빌리티에 지역 참여형 가맹본부 진행 현황을 문의한 결과 “지역 참여형 가맹본부 모집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다만 확실하지는 않은 만큼 추후에 알려드리겠습니다”는 대답을 들을 수 있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이전부터 자사 가맹택시에 콜을 몰아주는 등 갑질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2023년 12월14일 4개 택시 단체와 상생 협약을 체결하고 수수료율 2.8% 서비스 출시·단순한 수수료 체계 도입·공정배차 정책 시행·프로그래밍·데이터·상생 협력 기반의 택시 플랫폼 환경 조성 등에 합의했다.

그러나 2024년 상반기로 예정됐던 신규 서비스 출시가 늦어지면서 상생 의지에 대한 의구심을 불렀다. 2024년 상반기 4개 택시 단체가 상생 협약에 대한 후속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는 성명을 내기도 했다.



2023년 12월 카카오택시와 택시단체 관계자들이 간담회를 마치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카카오모빌리티

이후 2024년 6월 카카오택시의 새 가맹서비스 네모택시가 국토교통부 승인을 받았으며 2024년 10월부터 시범운영에 나섰다. 택시 단체에 확인해본 결과 2025년 2월 기준으로 네모택시 운영이 실제로 이뤄지고 있다는 대답을 받을 수 있었다.

네모택시 운영에 이어 지역 참여형 가맹본부까지 순조롭게 운영이 진행된다면 카카오모빌리티의 상생 의지 확인과 더불어 택시 기사들 또한 수수료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실제 택시 기사들이 이를 체감하는 데에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개인택시가 아닌 택

시 노동자들의 경우 수수료가 낮아지더라도 즉각적인 수입 증가를 누리기 힘들다.

한 택시 기사는 “카카오에서 뭔가 많이 한다는 말은 들었는데 현장에서 느끼기에 큰 변화는 없는 것 같다”며 “말한 게 있는 만큼 확실하게 해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관계자는 “일단 수수료가 2.8%로 줄어드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택시의 경우 직접적인 이익을 얻게 되지만 택시노동자의 경우 소속된 기업이 수수료 부담을 줄이면서 간접적인 이익을 기대하는 정도다”고 말했다.

양준규 기자jgyang@skyedaily.com

SPC그룹 美텍사스 제빵공장 건립 확정

2027년 하반기 준공 목표

SPC그룹이 미국 텍사스 주 제빵공장 투자를 확정하고 본격적인 건립에 나선다. SPC그룹은 미국 텍사스주 존슨 카운티 벨리슨시에 위치한 산업단지 ‘하이 포인트 비즈니스 파크’에 약 15만㎡(4만 5000평) 규모의 제빵공장 부지 매입을 완료하고 투자 계획과 지원금 등을 현지 지방정부로부터 승인받았다고 3일 밝혔다.

SPC그룹 관계자는 “파리바게뜨 미국 제빵공장 건립은 허영인 SPC그룹 회장의 적극적인 글로벌 사업 강화 방침에서

비롯됐다”며 “2기 트럼프 행정부 출범에 따라 급변하는 글로벌시장 환경과 관세 제도를 비롯한 미국 산업 정책을 고려해 추진이 가속화됐다”고 전했다.

텍사스주는 지리적으로 미 전역을 비롯해 캐나다·중미 지역까지 물류 접근성이 뛰어나다. 특히 벨리슨시는 텍사스주 최대 도시인 달러스-포트워스 도시권에 속해 있어 고용 환경도 좋다.

SPC그룹은 이곳에 1억6000만 달러를 투자해 2027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올 여름에 본격적인 착공에 들어간다.

김나윤 기자nykim@skyedaily.com